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통희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E W H A N E W S

이화소식

창립 120주년
**Frontier
Ewha**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안 갈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2006.06.22 제 75호

창립 120주년 기념사 _02

활짝 열린 새 정문 _04

이화학당 한옥교사 복원 _05

제 6회 김옥길 기념강좌 _07

3대 이상 이화가가족 _08



120th Anniversary of Ewha

본교 재학생들이 창립120주년을 맞아 봉헌된 새 정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120년 이화의 최대 자산은 프런티어 정신"

1886년 5월31일, 이화의 창립은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내외 여러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0년전 단 한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여성사학으로 성장하여 '여성 지성공동체'를 이끌어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도전과 개혁의 정신으로 인류사에 모범적인 족적을 남기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화는 현재 국가의 대학종합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거듭 영예로운 종합 1위로 평가되었고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1위로 평가되는 등 교육의 수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는 인문학과 예술분야 등이 강세인 학교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분야의 경우,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교수님들만이 아니라 대학원생과 학부생들까지 논문을 게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우리사회가 깜짝 놀랄 만큼 이른바 '여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판입니다. 교육·언론·문화·예술·경영·의약 등 모든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여성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는 이화인 모두가 소리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한 결과입니다. 또한 본교가 특성화전략을 비롯한 각종 발전정책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데 주력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소명감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49개국 449개교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이화는, 이제 단순한 교류가 아닌 함께 나누며 세계로 나아갈 시점입니다. 그 실천의 일환으로 창립 120주년을 맞아 '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EGPP)'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고 전 세계의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여학생을 전액장학생으로 매년 3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하여, 그 나라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체제 구축

한편, 이화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끊임없는 선도적 변화를 통해 전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정보화로 인한 21세기 지식혁명은 고등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혁명의 핵심적 요구는 '대통합' '융합' 또는 '통섭'으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우선 기초학문교육의 강화와 학제간 협력을 위해 필요한 유연성은 물론, 유사학문 분야의 통합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걸 맞는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맥락의 다양한 구조개혁을 조심스럽게 단행하여 왔습니다.

첫째, 학부교육의 혁신을 위해 1996년에 학부제를 도입하였고, 그 후 지난 10년간 학부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학부교육을 위해 Honors college와 University College의 장점을 살려 이화의 여건에 부합하는 학부대학을 2007년에 도입합니다. 또한 학부에서 전문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예술과 건강과학 분야에 속한 전공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재편하는 예술대학과 건강과학대학이 2007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둘째, 대학원에 연구중심의 학제간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관련 학문분야를 통합하여 분자생명과학부를 도입하였고 뒤를 이어 디지털미디어학부, 나노과학부와 같은 통합적 편제를 채택하였으며 조간간 에코과학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수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체제로서, 1997년에 국제대학원과 통역번역대학원을 신설하였고 2006년에 사회복지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설립하였으며 2007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체제에 국내 다른 대학보다 한 발 앞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용광로같은 공동체 정신으로 끊임없는 전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화인 여러분.

발전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거기에는 항상 진통이 수반됩니다. 오늘의 이화가 있기까지의 변화와 혁신에도 적지 않은 진통과 시련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견들은 이화라는 용광로에 의해 녹여져 오늘의 이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녹여서 마침내 생산적으로 통합해 내는 이화 고유의 공동체 정신은 이화의 전통이며 자산입니다.

창립 12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정한 'Frontier Ewha'는 이 시대 우리가 개혁하여 만들어 갈 이화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120년간 면면히 지켜 내려온 이화정신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승할 역사와 전통과 가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화가족 여러분과 이화의 건학이념에 공감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화의 친구와 이웃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약본>

2006. 5. 30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령

창립
120주년
기념식

한마음 되어 되새겨본 이화 120년 역사의 참 뜻

본교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5월 30일(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사진)을 갖고 여성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이 땅에서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세계 최대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성장한 이화 120년 역사의 참 뜻을 되새겼다.

이화국제재단의 사론 레이더 회장 등 국내외 귀빈, 연세대 정창영 총장 등 국내외 대학 총장들과 교직원, 동문, 재학생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신인령 총장은 “1886년 이화의 창립은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으며 “이화는 ‘프런티어 정신’으로 끊임 없이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체제를 한 발 앞서 이룩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여성인재들을 초청 장학생으로 받아들여 교육하는 이화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EGPP) 등을 통해 이화를 전 세계 여성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지식공동체로 키우겠다”고 120주년을 맞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화에 봉직한 지 10년·20년·30년 된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정대현 교수(철학), 이재상 교수(법학)에게 ‘이화학술상’이 수여됐다. ‘3대 이상 이화가족’ 찾기 행사를 통해 발굴한 3~4대 이화가족들도 자리를 함께 해 대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이화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화 12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는 순서에서는 무대와 객석 전체가 감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유관순 열사와 함께 이화학당을 다닌 남동순 동문(사진)이 104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고령동문으로 참석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총동창회(회장 윤순희)의 ‘동창의 날’ 기념행사도 같은 날(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회보 경연대회 시상, 합창제 등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윤순희 총동창회장은 서명선(사회복지학 76년 졸)등 37명의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전달했다.

정대현 · 이재상 교수 ‘이화학술상’ 수상

“가족에게 받는 칭찬이 더 기쁜 법”

정대현 교수(철학)와 이재상 교수(법학)가 30일 창립 120주년 기념식에서 ‘이화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화학술상은 탁월한 연구 성과로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이화의 학문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본교 교수에게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로 2회째.

언어분석 철학자인 정 교수는 본교 교양교육 제도를 확립하고 여성학과 창설에 기여하는 등 여성학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교양교육위원회·

인문학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여 한국 철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저서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1985)』 『심성내용의 신체성(2001)』 등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주요 저서로 『한국어와 철학적 분석(1985)』, 『맛음: 진리와 의미를 위하여(1997)』, 『표현인문학: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2000)』 등이 있다.

이재상 교수는 한국 형법학계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실력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2001~2004), 한국형사법학회 회장(1998~1999), 한국형사정책학회



정대현 교수



이재상 교수

장(1996~1998), 형사판례연구회 회장(1992~2001) 등을 지내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았다. 본교 법과대학 창설 당시 학장(1996~2000)으로서 2000년 전국 법과대학 평가에서 본교 법대가 전국 1위를 하는데 기여했다. 주요 저서로 『형법총론(2005)』, 『형법각론(2005)』, 『형사소송법(2006)』,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 방안(2006)』 등이 있다.

정대현 교수는 “30년간 이화의 언어를 배우면서 페미니스트가 되었고 소수자와 약자의 윤리, 다원주의 체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화 공동체가 있었기에 내 연구도 가능했던 것”이라며 “퇴직하는 시점에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상 교수 역시 “가족에게 받는 칭찬이 가장 기쁜 것처럼 ‘이화 학술상’ 수상 이 그 어떤 상보다 큰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효>

제13대 총장에 이배용 교수 선임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윤후정)은 6월 9일(금) 이사회를 열고 이배용 교수(인문과학대학장·사학 전공)를 본교 제13대 총장으로 의결했다. 제13대 총장의 임기는 2006년 8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성 사학자로, 특히 한국 근대사와 여성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이배용 교수는 현재 본교 인문과학대학장과 이화역사관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여성사학회 회장, 조선시대사학회 회장,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 역사속의 여성들’,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한국사 회사상사’ 등 다수의 저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화 창립 120주년에 이처럼 막중한 책

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화가 120년간 쌓아 올린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이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본교 사학과를 졸업한 이배용 교수는 본교 대학원 석사를 거쳐 서강대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85년부터 21년 6개월간 본교 교수로 재직해왔다.



〈학력 및 출신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69년 졸)
이화여자대학교(석사) 한국사 전공(71년 졸)
서강대학교(박사) 한국사 전공(84년 졸)

〈교내 보직경력〉

한국여성연구원장(1993. 9~1997. 7)
평생교육원장(2000. 2~2006. 1)
이화역사관장(2003. 8~현재)
인문과학대학장(2006. 2~현재)

〈주요 경력〉

조선시대사학회 회장(2006. 1~현재)
서울시 문화재 심의위원(2005. 6~현재)

한국여성사학회 회장(2004. 9~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2003. 9~현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1999. 5~현재)

활짝 열린 새 정문

미래로 세계로 ‘이화로’

이화의 역동적인 미래상을 상징하는 새 정문이 5월 30일(오후3시) 활짝 열렸다. 2002년 이화교 상단 철도부지 복개사업으로 구 정문이 철거된 지 4년만이며 새 정문 공사를 시작한 지 6개월만이다. 이날 봉헌식에는 많은 교내외 귀빈을 비롯, 이화 삼성캠퍼스센터(ESCC) 설계자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참석해 새 정문의 완공을 축하했다.

새 정문과 진입로는 연면적 189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축물과, 길이 30여m의 철제 문을 포함하고 있다. 유리박스 형태의 건축물은, 지상층은 경비실 등 인포메이션 박스로, 지하층은 다양한 문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새 정문 공간에는 재학생 대상 이름짓기 공모를 통해 ‘이화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계를 향해 ‘이화로’ 가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인령 총장은 “새 정문을 포함하는 이화로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길이자 광장으로, 이화의 역동적인 미래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새 문 열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프런티어 이화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문 설계자 도미니크 페로는 “학교 밖 시내와 교정을 이어 주는 신축 정문은 이화인들이 문화와 학문의 교류를 꿈꾸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 날 봉헌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이화로’ 공모 당선 재학생은 다음과 같다.

황정원 (국문 05) 박지혜 (국문 04) 김보선 (독문 02) 김은지 (작곡 05) 엄선정 (사생 04)
강희수 (과공 05) 김민정 (법학 03) 김민지 (경영 05) 최지희 (대학원 문헌정보 1학기)
허강은 (대학원 사회생활 3학기) 〈선〉

정의숙 이화학당 전 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신인령 총장 등 내외 귀빈들이 ‘이화로’의 유리 건축물 앞에서 완공을 축하하고 있다.



이화학당(梨花學堂) 한옥교사 복원되다

‘창조의 집’ 짓는 ‘기억의 집’으로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발상지인 이화학당 한옥교사(校舍)가 법학관앞 부지에 완공되어 5월26일(금·오전11시) 봉헌식(오른쪽 사진)을 가졌다. ‘이화역사관’으로 불리게 될 이 한옥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97평 규모로 1층에는 역사전시실, 지하 1층에는 향온합숙기능을 갖춘 수장고와 역사관 행정실이 들어선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1897년, 학생 수의 증가로 2층 양옥인 ‘메인홀’ 건축을 위해 헐리기까지 이화학당 한옥교사는 배움의 열망에 찬 여성들을 민족의 봉사자, 선각자로 길러 낸 첫 요람이었다”면서 개화기 우리 전통문화와 서양문화의 접점으로서 문화사적인 가치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령 본교 명예교수는 “이화학당의 복원으로 우리는 ‘배움의 집’이란 이런 것이라라는 모델을 갖게 되었다. 이 ‘기억의 집’을 통해 앞으로 이화가 더 많은 ‘창조의 집’을 지어나갈 것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중요 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복원을 지휘한 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전시의 한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여백의 미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 개관 기념 전시회는 ‘이화, 첫 이야기’ ‘최초의 여의사, 여대생’ ‘3.1운동과 신여성’ 등 3세기에 걸친 근대 여성사를 시대 순으로 흥미롭게 펼쳐놓고 있다.

이화학당 한옥교사는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1886년 11월에 완공한 2백평 규모의 한옥으로 배재학당 설립자인 아펜셀러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집”이었다. 학당장실, 교무실, 선교사 숙소와 학생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기숙사 등 7개의 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이화에 헌신하신 다섯분의 스승을 기리며

양화진 외인묘지에 기념표석 세우다

이화의 창설과 성장 발전에 헌신했던 다섯분의 스승을 기리기 위한 기념표석 봉헌식이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신인영 총장, 이배웅 이화역사관장, 윤순희 동창회장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3일(화) 오전10시40분 양화진 외인묘지내 스크랜튼 묘역에서 열렸다.

양화진 외인묘지에는 1886년 이화학당을 설립한 메리 F. 스크랜튼 당장, 1890년 보구여관에 부임해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 에스더(김점동)를 길러낸 로제타 셔우드 홀 의사, 이화학당의 제3대 조세핀 O. 페인 당장, 메이어 R. 힐만 당장서리, 1925년 전문학교를 세운 앨리스 R. 아펜셀러 교장 등 다섯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봉헌식에 앞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이화의 다섯 스승이 묻힌 이곳 양화진 묘지는 이화 역사 뿌리의 현장이며 이들이 보여주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어둠속의 한국여성들에게 새 빛을 가져다 준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화는 역사의 대학, 진리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웅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표석에 새겨진 내용이다.

이화의 창설과 초석을 놓으신 스승님들

양화진 외인묘지에는 일찍이 이화학당에서 헌신하신 고마우신 스승 5분이 모셔져 있다. 1886년 한국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메리 F. 스크랜튼 당장, 1890년 보구여관에 부임하여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를 길러낸 로제타 셔우드 홀 의사, 1904년 중등과를 설치하셨던 이화학당의 제 3대 조세핀 O. 페인 당장, 1904년 부임하신 메리 R. 힐만 당장서리, 이화를 종합대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해 1925년 전문학교를 세우고 1935년 지금의 신촌캠퍼스로 대학을 이전하여 미래 발전의 터전을 닦으신 앨리스 R. 아펜셀러 교장, 이들 선교사 5분은 이화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여성사, 한국근대사, 한국교육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이곳은 이화인으로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화역사 뿌리의 소중한 의미를 가진 현장이다.

이에 이화 창립 120주년을 맞아 오늘의 이화를 있게 하신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생애와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자 이곳에 기념 표석을 세운다.

2006년 5월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제5회 E미디어아트 프리젠테이션

교정에서 만난 백남준의 예술혼

조형예술대학(학장 오용길 교수)이 미디어 아트의 거장 백남준의 예술혼을 기리는 '선구자 백남준' 특집전으로 5월 22~24일, (E)미디어아트 프리젠테이션 (EMAP)을 개최했다. 3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3시간여 동안 본관 후원과 진선미관 광장 등 교내 숲 속 7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백남준의 초기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과 국내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상영됐다. 이 중에는 백남준의 초창기 휘귀 작품인 1965년작 '버튼 해프닝(2분)'을 비롯해 1965~1972년 만든 '시네마 메타피지크(8분39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백남준 작품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는 1969년작 '9/23/69:데이비드앳우드와익실럼'(89분)도 국내 최초로 선보였고, 유명작인 1984년작 '굿모닝 미스터오웰'(30분)등도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전위 영상 예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제1회 이화글빛문학상〉 서수진 작 '꽃이 떨어지면'



두 여인의 감각적인 사랑 이야기가 교차되는 서수진(국문과 06년 졸 사진 왼쪽)씨의 소설 '꽃이 떨어지면'이 이화글빛문학상의 제1회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대학보사와 출판부가 공동 주관한 이화글빛문학상은 지난해 5월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장편 소설을 공모, 올해 3월 소설가 권지예씨와 국문과 김미현 교수의 심사를 거쳐 첫 번째 수상자를 가려냈다.

5월 22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당선자 서수진씨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전달한 신인령 총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당선자가 시대정신을 이룰 수 있는 개성

있는 작가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두 여성 화자의 교체시점으로 각자의 사랑을 펼쳐나가면서 여성의 심리묘사는 물론 등장인물의 캐릭터, 서사구조 등 완성도가 대단히 높았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평.

서수진 씨는 "과분하지만 이번 수상이 아깝지 않도록 전업작가로서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래의 역량있는 문예작가를 발굴, 당선작을 출간해 줌으로써 기성 문단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화글빛문학상은 앞으로 매년 창작 소설을 공모, 5월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꽃이 떨어지면'은 6월 2일 출간되어 시중 대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3세기 이화 역사를 한 눈에 '이화영상실록' 발간

이화역사관(관장 이배용 교수)이 창립 120주년



기념 사진도록 '이

화영상실록'을

발간했다. '이화영

상실록'은 '이화학

당 시대' '대학과 시

대' '전문학교 시대'

'종합대학교 시대'

'성장·도약시기' '이

화 2세기' '세계적 명문

대학을 향하여'의 총6장, 328장의 사진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을 지낸 김희중

상명대학 석좌교수가 편집을 맡은 이 도록은 향후 이

화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번 사진도록은 CD로도 함께 제작되었다.

(구입문의: 이화역사관 3277-3199)

제6회 김옥길 기념강좌

세계화의 길목에서 교육·문화·과학을 논하다



루스 시몬스 총장

제6회 김옥길 기념강좌가 5월 10일 (수·오전 10시30분) 김영의홀에서 '세계화의 새 지평: 융합과 통섭'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 문화, 과학 세 분야의 세계화를 심도 있게 진단해 본 이번 강좌에는 루스 시몬스 미국 브라운대 총장, 유흥준 문화재청장, 최재천 본교 석좌교수(생명과학전공)가 연사로 나서 1000여명의 청중을 사로잡았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에 대해 기초 연설한 시몬스 총장은

"세계화 교육은 인종과 계

급, 문화를 넘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월감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대학이 제대로 된 세계화 교육을 수행해야만 오늘날의 국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 아이비리그 대학 최초의 흑인 총장이 된 그는 교육의 마술적 힘을 증명해 보인 입지전적 인물. 2002년 본교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이비리그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미국 대학교육의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최재천 석좌교수

제1강좌 '한류(韓流)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계사에서 한국문화의 위상'을 강연한 유흥준 문화재청장은 "한류는 한국이 '문화수신국'에서 '문화발신국'으로 위상이 바뀐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한류를 마치 문화제국주의적 성공으로 생각하며 일방화한다면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문화권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이익보다 지식과 기술 등 문화적

원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준 문화재청장

제2강좌 '통섭: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세계화'에서 최재천 교수는 "학문의 구획이란 진리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인간이 편의대로 만든 것일 뿐 자연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학문의 세계화는 학문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옥길 기념강좌는 이화의 큰 스승인 김옥길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본교가 개최해 온 국제 학술행사이다. <효>

국제학술강연회 분극에서 통합으로 가는 예술의 길

'분극에서 통합으로 가는 예술의 길'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가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3월 24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예술대학 통합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의 제라드 험스워드 교수와 우리 시대의 석학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연사로 나서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예술 현상 중 하나인 통합에 대한 실제 사례와 의미 등을 심층진단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음악, 미술, 무용, 의류학의 분과 학문을 통합한 본교의 예술 대학 설립을 앞두고 그 학술적 의의를 되새기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예술 교육기반 구축에 대한 본교의 열정과 노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비아 카트라이트 뉴질랜드 총독 명예 법학박사학위 수여

실비아 카트라이트(Silvia Cartwright · 63) 뉴질랜드 총독이 4월 19일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여성의 권익과 인권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본교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카트라이트 총독은 수락 연설문을 통해 "여성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전통으로 이어오는 이화여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1967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을 졸업하고 법조계에 첫발을 디딘 카트라이트 총독은 여성법률가 및 국가원수, 그리고 국제적 리더로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50여개의 국내외 인권 단체를 후원하는 등 여성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의 권리 향상과 인권 수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왼쪽부터 총독의 부군, 신인령 총장, 카트라이트 총독, 조 형 대학원장

한자리에 모인 '3대 이상 이화가족' 들

“이화의 역사는 우리 가족의 역사”



‘어머니-딸-손녀’, ‘시아머니-며느리-손녀’, ‘시아머니-며느리-손자며느리’... 대를 이어가며 이화의 인연을 맺어온 3대 이상 이화동문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5월 30일 창립 120주년을 맞아 ‘3대 이상 이화가족’ 들을 위한 기념패 전달식이 마련된 것(생활환경관 교직원식당 귀반실).

지난 4월 한달 동안 본교가 진행한 ‘3대 이상 이화가족’ 찾기 행사에 연락해 온 동문은 총 36가족. 이 중 본교 윤미재(건반악기·기악과 65년 졸)교수 가족이 유일한 4대(외증조모-외조모-어머니-딸) 가족으로, 창립기념식장에서 대표로 기념패를 받았다. 또한 임정자(전수과 43년 졸)동문 가족은 3남2녀 중 두 딸과 며느리 1명이 모두 본교 의학과 출신이며, 사촌지간인 이들의 딸들도 동문이거나 재학생으로 총 9명의 이화인을 배출했다.

이들 가족 외에도 상당수가 직계 뿐 아니라 자매 혹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까지 동문인 열혈 이화가족이어서 “한번 이화인은 영원한 이화인”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패 전달 및 기념 촬영, 이화역사관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오랜만에 교정을 찾은 고령의 동문들은 “우리가 다닐 때와는 학교가 너무 달라졌다”며 감회에 젖었다.

“외손녀 낳아 5대 이화인 만들어야죠”

총15명의 이화인 배출한 4대 가족

이화 역사와 함께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윤미재 교수. 그 첫 인연은 외할머니 윤심성(이화학당 대학과 14년 졸) 씨. ‘사의 찬미’로 유명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언니로, 졸업 후 이화학당에서 3년간 교사로 재직했다.

윤 교수는 “외할머니가 당시 유관순을 직접 가르치셨고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집에 머물 정도로 친분을 유지했었다”며 외조모의 후배였던 김할란 박사 등과도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냈었다고 회상했다. 어머니 신숙향(이화여전 41년 졸)씨 역



왼쪽부터 윤심성, 윤미재, 신숙향 동문

시 이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1남5녀 중 딸 넷을 동문으로 만들었다.

“할머니, 어머니 모두 이대를 다녀서 이화가 친정 같았죠.” 서울예고를 1등으로 졸업해 서울대 진학을 꿈꾸었던 윤 교수는 “당연히 이대에 가야한다”며 설득하던 가족들이 당시에는 불만이었다고, 하지만 정작 딸인 오유진(의류직물·94년 졸)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자 “무조건 이대를 가야한다”며 설득했었다. 앞으로도 대를 이어 이화 동문 가족을 만들겠다고 딸에게 “5대를 유지하려면 외손녀를 봐야한다”고 당부하는 윤 교수의 이화사랑은 끝이 없다.

“이화의 매력에 3대가 푹 빠졌어요”

두 딸과 며느리, 세 손녀가 후배

“두 손으로 잡을 만큼 가늘었던 소나무가 두 팔로도 못 감싸 안을 정도로 울창해진 걸 보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올해 여든의 나이로 이화 교정을 밝은 임정자씨가 소회를 풀었다. 재학 당시 전교생이 진선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진주, 최영주, 송진이, 김영경, 최선혜, 임정자, 정윤경 동문

미관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지내며 수업 들었던 그 시절이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임 씨. 일제강점기와 같이 기숙사에서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던 김옥길 전 총장에게서 독립운동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일본사람들이 학교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전쟁 말기였는데 협조 안 해주면 학교 없애겠다면서 일본 장교가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혼인했던 임씨는 3남 2녀를 두었고 이들을 모두 의대에 진학시켰다. 며느리와 사위 역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두 딸인 최진주(74년 졸), 최영주(79년 졸)씨와 둘째 며느리 송진이(83년 졸)씨는 본교 의대 동문이고 첫째 아들인 최수승 교수는 본교 의대에 재직하고 있다.

“이화에 몸담은 지 벌써 13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딸과 며느리가 다 이대 출신이니 저야말로 진정한 이화인이죠.” 최 교수가 동문 못지않은 이화 사랑을 전한다. 이들의 뒤를 이어 임씨의 손녀 네명도 모두 이화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다.

“외할머니, 어머니가 동문이니 어렸을 때부터 이대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정윤경(특수교육 03년 졸)씨는 사촌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며,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이화 대가족의 장점으로 꼽았다. “딸 낳으면 이대로 보내야죠.” 갈수록 이화동문의 파위를 실감케 된다는 손녀들의 이구동성이다. <민>

나노과학부 최진호 석좌교수 · 남원우 석좌교수 과학분야의 큰 상 잇따라 수상



본교 나노 과학분야를 대표하는 최진호 석좌교수 (왼쪽 사진)와 남원우 석좌교수가 그간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진호 석좌교수는 4월 21일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의 최고 등급인 창조장을 수상했다.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나노-

바이오 융합물질 과학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실용화한 업적을 평가받았다.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01년에 신설되었다.

남원우 석좌교수도 4월 25일 '제5회 듀폰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 매년 화학 및 재료공학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남 교수는 산소화효소 화학반응 규명과 인공효소 촉매 시스템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교수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한국을 생체 모방 연구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직발령〉

이화삼성캠퍼스센터 건축팀장에 강미선 교수 (건축)가, 이화어린이연구원에 이기숙 교수(유아교육)가 임명되었다(5월 1일자).



강미선 교수



이기숙 교수

교수동정

최경희 교수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발탁



최경희 교수(과학교육 · 학생처장)가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교육문화수석 체제였던 국민의 정부를 포함해 교육문화비서관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교수는 본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과학교육 학 석 ·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럽을 만난다, 과학을 읽는다' '과학과 교수학습과 수행평가' 등 과학교육과 관련한 다수의 저서를 발표해 왔다.

김찬주 교수(물리)



4월 20~21일 강원도 휘닉스 파크에서 개최된 한국물리학회 정기총회 및 논문 발표회에서 백천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입자 물리학 이론전공의 40세 미만 물리학자 1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성태제 교수(교육)

서울대 교육정보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정기 총회에 서 2년 임기의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에는 '연구방법론' (학지사)을 공동 저술해 출판했다.



최미경 교수(번역학)



4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 7회 한불문화상을 수상했다. 1999년 제정된 한불문화상은

프랑스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며 최 교수는 황석영의 '손님' 등 다수의 한국문학 작품과 문화 서적을 번역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성국 교수(경영)

3월 17일 열린 한국인사조직 학회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앞으로 1년 동안 인사 및 조직 관련 분야의 연구와 경영학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인사조직학회를 맡게 된다.

고수영 교수(화학)

해외 저명 저널인 Tetrahedron Letters에 발표한 논문이 지난해 해당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논문 25편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이트의 논문은 매 시간 천 건 이상, 한 해 동안 8백만편 이상이 다운로드 된다.



홍양자 교수(체육)

3월 31일~4월 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60명의 IOC 위원과 여성 대표 15명을 포함한 201개국 국가 대표들이 모여 올림픽의 제반현안을 논의했다.



박신화 교수(성악)

7월 1~9일 아이다호 국제 합창제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서 이화챔버라이어 순회공연을 갖는다. 6월 12일 김영의 홀 기념 연주를 시작으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을 돌며 본교 학생과 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 이화챔버라이어의 합창 연주를 선보인다.



김영희 교수(무용)

6월 14~15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작품 '마음을 멈추고'를 공연했다. 이 작품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예술상' 무용부문에서 2005년도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나 된 이 순간이 바로 이화

우리의 열정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이화, 세상을 즐겁게 흔들다'.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던 대동제.
5월 24~26일, 이화의 젊음이 뿜어낸 열기가 교정 곳곳을 수놓았다. 찰나에 담긴 이화인은 싱그러움 그 자체.
하나되어 외치는 대동의 함성 속으로 GO! GO! | 사진·박주연, 이지원, 정지영|

Kiss the Ewha Cup

5월 26일에 열린
'이화인 하나되기' 축구대회 결승전.
기숙사의 다국적 재학생들로
구성된 한우리팀이 법대를
6대1로 완승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화에 나타난 '붉은 악마'

총동창회(회장 윤순희)가 주관한 '동창의 날' 합창대회에 체대 동문들이 특별출연해 몸장다운
춤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창립 120주년을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올해의 이화인' 37명이 화사한 퍼레이드를 펼쳐 눈길을 모았다.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연구센터-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에 선정

생명과학 연구의 메카로 인정받아



이공주 교수

생명과학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쌓아온 본교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연구센터(센터장 이공주 교수)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06년도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National Core Research Center) 사업에 선정됐다.

본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융합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것으로, 올해에는 22개 센터가 지원을 신청, 9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3~5월 두 달간 심층 심사를 실시하여 본교와 부산대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세포신호전달계바이오의약연구센터는 올해 14억,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억씩 7년간 총 134억원의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공주 센터장은 "1998년 본교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가 우수연구센터(SRC)에 선정되었고 사업 종료 9개월을 넘겨준 시점에서 또 다시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에 선정됨으로써 연속적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첫 번째 대학이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생명과학의 세포신호전달계 연구와 약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 원료가 되는 표적 단백질 및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대학원 분자생명과학부와 약학대학 교수 30여명이 참여한다.



유비쿼터스 혁명, 이화에서 이루어진다

SK텔레콤과 사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꿈의 교육환경으로 불리는 U-캠퍼스가 이화에서 현실로 펼쳐지게 됐다. 신인령 총장과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4월 11일 (화·오후 2시) 본관(1층 소회의실)에서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에 유비쿼터스 IT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사진)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 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U-캠퍼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등의 기술 분야와 향후 사업 활성화 단계에서도 상호 협력기로 했다.

본교 운동장 지하에 신축중인 총 2만평, 6층 규모의 최첨단 미래형 교육 공간인 이화·삼성캠퍼스센터는 이번 체결에 의해 'U-클래스룸' 'U-라이브러리' 'U-서포트' 'U-파인더' 'U-시큐리티' 'U-커머스' 등 교육과 캠퍼스생활에 혁명을 가져오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선도적 체험공간으로 자리잡게 됐다.

신인령 총장은 "앞으로 이화는 캠퍼스에 첨단 유비쿼터스 서비스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의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학사·행정·교육 측면에서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취업문 활짝 연다 서울지방노동청과 취업지원 협약식

본교와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4월 21일, 취업지원 협약식(사진)을 갖고 재학생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연수지원 등 본교 재학생의 취업 활동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진로 및 취업지도 프로그램 지원, 직장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조, 진로 탐색과 결정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지원, 진로 및 직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지원, 기타 관련 업무 상호 협조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미술을 통해 본 '여성의 일과 눈물'

박물관 특별기획전 '여성 · 일 · 미술'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단한 삶이 묻어난 미술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박물관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 '여성 · 일 · 미술'을 주제로 특별기획전(5월 24일~7월 15일)을 마련한 것.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노동을 다룬 미술작품 70여 점을 전시하는 이번 기획전은 단순히 미술품 감상이 아닌 여성 노동의 변천과 역사적 위

상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전시관 1실과 2실에는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을 테마로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을 담은 작품을 비롯해 궁녀, 의녀, 기녀 등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여성을 그린 회화가 전시되며 3실에는 근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전시된다.

현대미술전시관에는 '근현대미술 속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과 '여성노동에 대한 동시대 여성미술가들의 시각'을 테마로 남녀의 성별을 넘어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재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분야별 전문인들이 한 자리에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 〈통일학연구원〉 학술대회

세계 지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학술대회가 이화 교정에서 잇따라 마련됐다.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원장 조형 교수)은 4월 28~29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미래와 번영을



위한 투자:21세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왼쪽 사진)를 개최했다. 한국을 포함한 OECD, 캐나다, 덴마크, 싱가포르, 영국 등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및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날에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전문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튿날에는 각 나라와 분야별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한 통일학연구원(원장 구대열 교



수)의 국제학술대회(오른쪽 사진)는 5월 11일(국제교육관) 개최됐다. 페터가이 주한 에베르트 재단 소장, 조용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등이 연사로 초청되어 지금까지의 대

북지원 현황 평가, 사례연구를 통한 향후 대북지원 및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동북아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토론 등 대북문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전망도 활발히 펼쳐졌다.

2006년 전기 직원 인사발령 (4월 1일자)

소 속	성 명	직 위	발령사항
자연과학대학	김은숙	사무직원(과장)	명: 국제교육원
구매과	조원숙	사무직원(과장)	명: 자연과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박연옥	사무직원(주임)	보: 과장 명: 구매과
교육대학원	이미경	사무직원(주임)	명: 음악대학 · 실용음악대학원
음악대학 · 실용음악대학원	박한숙	사무직원(주임)	명: 총무과
법과대학	이금숙	사무직원(주임)	명: 기획과
기획과	김미숙	사무직원(주임)	명: 법과대학
후생복지과	김영철	사무직원(주임)	명: 사법대학
예산과	왕혜정	사무직원(주임)	명: 대외협력과
국가인적자원개발연구원	한미라	사무직원(주임)	명: 감사실 · 기획과
사회과학대학 · 정보과학대학원 · 정책과학대학원	정희정	사무직원	보: 주임
경영대학 · 경영대학원	추정아	사무직원	보: 주임
인사과	이미양	사무직원	보: 주임 명: 간호과학대학
예산과	최혜련	사무직원	보: 주임
대외협력과	김영인	사무직원	보: 주임 명: 입학과
중앙도서관	이정희	준사서(주임)	면: 주임(3월 31일자)
중앙도서관	김영재	사 서	보: 주임
중앙도서관	강유정	사 서	보: 주임
사법대학	김창연	사무직원	명: 총무과
교무과	박숙영	사무직원	명: 인사과
교무과	이선연	사무직원	명: 예산과
학적과	최연숙	사무직원	명: 대학원
사회봉사센터	선윤정	사무직원	명: 입학과
입학과	정예선	사무직원	명: 교무과
총무과	박서연	사무직원	명: 교무과
회계과 · 산학협력과	도정민	사무직원	명: 자급팀
시설과	송규동	사무직원	명: 사회봉사센터
자급팀	이현경	사무직원	명: 회계과 · 산학협력과
연구과 · 산학협력과	김수진	사무직원	명: 학적과
국제교육원	서지인	사무직원	명: 교무과



배성아



백승학



장윤선



변지은



정수현



김윤전



이선용

신임직원

소 속	성 명	직 위	발령사항
언어교육원	정영진	기술원	명: 멀티미디어교육원
후생복지과	김윤옥	영양사(과장)	명: 후생복지과(고사리수련관)
후생복지과	김영희	영양사(주임)	명: 후생복지과(본교)
입학과	박지인	사무직원	명: 체육과학대학 (4월 17일자)
신임	배성아	사무직원	명: 구매과 · 산학협력과
신임	백승학	사무직원	명: 시설과
신임	장윤선	사무직원	명: 연구과 · 산학협력과
신임	변지은	기술원	명: 정보시스템개발과
신임	정수현	사무직원	명: 입학과 (4월 17일자)
신임	김윤전	사무직원	명: 감사실 (5월 8일자)
신임	이선용	사무직원	명: 홍보과 (6월 1일자)

창립 120주년 장기근속 표창 교직원 명단

30년근속	교수	황경자(불어불문학), 박혜경(의학), 윤건일(의학), 김명래(의학), 이광자(간호과학)
	직원	정정희(약학대학행정실), 장미숙(총무과), 김용완(총무과), 강일구(시설과), 박원기(시설과), 주혜선(구매과), 김평운(연구과), 왕종기(멀티미디어교육원), 김은숙(국제교육원), 김영순(학생복지센터), 황인민(부속 이화 · 금란고등학교), 김영우(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김우식(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20년근속	교수	전길자(나노과학), 박승혁(영어영문학), 양종만(물리학), 이준승(생명과학), 함영림(건반악기), 박일순(조소), 오병권(시각정보디자인), 양혜순(영어교육), 문인옥(보건교육), 양명조(법학), 하종식(의학), 이순남(의학), 신길자(의학)
	직원	한미라(감사실 · 기획과), 김미숙(법과대학행정실), 우희일(총무과), 서미옥(예산과), 윤재숙(언어교육원), 이주호(부속 이화 · 금란고등학교), 최재옥(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강재은(부속 이화 · 금란중학교)
10년근속	교수	최주리(영어영문학), 장인봉(불어불문학), 최성만(독어독문학), 조지형(사학), 박경미(기독교학), 박성은(미술사학), 김이영(심리학), 박동숙(언론홍보영상학), 유세경(언론홍보영상학), 김은실(여성학), 허리금(여성학), 고응일(수학), 이병욱(컴퓨터 · 정보통신공학), 이진원(건축학), 박석순(환경공학), 김희성(건반악기), 송재광(관현악), 최경실(환경디자인), 차영순(섬유예술), 임현식(교육학), 박은혜(유아교육), 옥무석(법학), 강혜련(경영학), 김명옥(국제사무학), 정영혜(의학), 서석효(의학), 유경하(의학), 원태희(의학), 김혜순(의학), 임기환(의학), 유재두(의학), 김동연(의학), 정낙신(의학), 홍나영(의류직물학), 이인성(의류직물학), 장남수(식품영양학)
	직원	추정아(경영대학행정실), 박소연(교무과), 이지영(교무과), 이희진(교무과), 박서연(교무과), 박응진(시설과), 이나니(중앙도서관), 방주영(기숙사), 홍승렬(경력개발센터), 김양희(이화리더십개발원), 김혜정(학생복지센터), 한정혜(정보시스템개발과), 장재철(부속 이화 · 금란고등학교), 이신진(부속 이화 · 금란고등학교), 박윤숙(부속 초등학교), 신철승(부속 초등학교)
	조교	박한별(환경공학), 김혜경(약학)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The Spirit of Korean Cultural Roots

한국의 전통 선박 : 한선 최완기 지음

다른 지역의 배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독특한 형태와 구조를 지닌 한국의 전통 선박 '한선(韓船)'의 역사를 풍부한 도판과 함께 기술하고 있다. 우리 삶과 밀착되어 있던 한선의 만들새와 쓰임새의 고찰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을 또 다른 시각에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만2천원>

한국의 여행 문학 김태준 지음

한국의 여행 문학은 신라 시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 비롯되는 구법승들의 순례기, 시인 묵객들의 유산기, 유배지 문학, 표해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책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해외 체험의 역사요 풍속사이며 문학사인 동시에 정신사라고 할 수 있는 여행 문학에 대하여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1만2천원>

한국의 전통 사회 : 시장 정승모 지음

전통 시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의 단면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전통 시장의 역사와 기능에서부터 장터 속 문화까지 시장의 다채로운 풍경을 일목요연하게 짚어낸 개성서이다. <1만2천원>

Pottery : Korean Traditional Handicrafts

나선화 지음

<한국의 전통 공예 : 도기>의 영문판이다. 한국인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용기로 사랑받아온 도기에 관한 책으로 빗살무늬 토기에서 푸레독에 이르는 무유 도기와 구름 도기에서 옹기에 이르는 사유 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만5천원>



방송학 원론 유세경 지음

21세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방송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방송영상 산업 분야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책은 방송영상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이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씌어졌다. 방송의 개념, 특성, 기능 등 방송의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설명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방송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만9천원>



우리 말 · 글 · 생각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 편찬위원회 엮음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말이나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책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각과 표현의 기초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하고 표현의 두 영역인 말하기와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서술한 뒤 한 편의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롭게 엮은 본교 교양국어 교재의 개정판이다. <1만2천원>



평신도를 위한 신학 김홍기 지음

이 책은 성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체계적인 연구와 학습을 돕기 위해 출간된 이화여자대학교 다락방전도협회 말씀 시리즈 제2권으로,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신학적 주제들 중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일반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며 신앙심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만원>



내 마음의 두레박 최예슬 외 지음

본교 인문과학대학이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백일장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모은 책으로 2005년도 시 부문 장원을 차지한 최예슬의 작품 외 총 48편이 실려 있다. 21세기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전국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열리는 본교 전국 고교생 백일장은 올해 11회를 맞이하고 있다. <8천원>

2006년 <출판부 저술지원> 과제 선정자 발표

본교 전임교수들의 저술활동과 우수도서출판을 지원하는 <출판부 저술지원> 과제 사업의 2006년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선정자는 저술지원비 1000만원을 받으며 저술서는 출판부를 통해 출간된다. 매년 4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두차례 심사를 거쳐 6월에 5종을 선정,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ewhapress.com 참조.

다음은 선정자 명단

• 손운산(기독교학부) '용서의 이론과 실제' • 오수근(법과대학) '도산법의 이해' • 최재별(사회학과) '만해! 문화사회학적 읽기' • 반효경(컴퓨터 정보통신공학부) '운영체제를 통해 살펴본 정보기술의 원리와 철학' • 박삼근(교육학과) '여성주의 교육학: 학습리더십의 출현과 그 의미'

출판부 소식

출판부 새 보금자리 마련

출판부가 3월 24일 본교 후문 맞은 편 하늬솔 빌딩 A동 4층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4월 10일에 열린 '출판부 이전기념식'에는 윤후정 이

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파주출판도시 문화재단 김기웅 이사장(열화당 대표), 김언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한길사 대표) 등 대내외 인사들이 참석해 출판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창립 120주년 기념

이화의료원 역사사진전



이화의료원(의무부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건일)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5월 22일~6월 9일, 이화의료원 역사사진전을 개최했다.

목동병원과 동대문병원의 로비에 펼쳐진 이번 사진전은 이화의료원의 전신인 1886년 당시 보구여관의 모습, 초기학생들의 사진 등 이화의료원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줘 눈길을 모았다.

동대문병원

“21세기형 첨단의료기관으로 제2의 도약”



동대문병원(원장 연규월)이 개원 61주년을 맞아 4월 14일 기념식을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연규월 병원장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전직원이 합심해서 제2의 도약을 이루자”고 격려한 뒤 “21세기에 의학이 나아가야 할 분야인 예방과 재활 의학에 중점을 두면서 종합검진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독거노인 무료 인공관절수술권 증정, 협력 병원에 감사장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으며, 모범직원 및 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동대문병원은 최근 환자중심의 진료 체제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난치성희귀질환 연합회와 의료협력을 맺고 지역특성에 맞춘 가슴앓이 환병 클리닉을 개설했으며 외국인 진료를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4월 21일에 발표된 전국 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4대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에서 동대문병원은 진료체계, 감염관리, 병동, 질 향상 관리, 외래, 수술관리 체계, 모성과 신생아 등 총 18개의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하인스 워드 선수 “내 고향은 동대문 병원”

미국 프로 풋볼리그의 영웅 하인스 워드 선수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기 위해 4월 6일 자신이 태어난 동대문병원을 방문했다. 하인스 워드와 어머니 김영희씨는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규월 동대문병원장, 유한기 전 산부인과 교수 등과 함께 30여 년 전 분만 당시를 회상하며 분만실을 둘러봤다.

하인스 워드는 “내 삶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고 자신과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준 이곳에 감사한다.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전했다. 윤건일 의료원장도 “워드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노력과 어머니의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그가 태어난 곳이 동대문병원이라는 사실이 가슴 뭉뚱하다”고 반가워했다. 동대문병원에서는 워드 선수에게 출생증명서, 출생당시 발모양이 찍힌 기록물, 분만 기록이 담긴 분만 기념패 등을 전달했으며, 워드 선수는 자신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과 친필 싸인이 들어간 기념물을 병원 측에 기증했다.



목동병원

심장질환 무료검진 행사



심장혈관센터는 4월 18일(화) 심장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장혈관질환에 대한 무료검사와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혈당, 혈압,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체크하는 무료검진을 받았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식단 상담도 진행되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동정



강덕희 교수(신장내과)

4월 15일 한국여의사회가 제정한 ‘건일학술상’을 받았다. ‘요산에 의한 C반응 단백질의 발현’이라는 논문을 통해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및 대사성 증후군 등의 원인 및 위험인자인 C-reactive protein이 혈관 내피세포 및 평활근 세포에서도 직접 발현하고 합성된다’는 사실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경하 교수(소아과)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2006-2007년 Medicine and Healthcare판에 등재되었다. ‘성체줄기세포의 장기재생’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오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이선호 교수(예방의학)

3년 임기의 대한의학회의 의료제도이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위원직을 4월부터 맡게 되었다.

석진호 직원(의대 시청각실)

건기 예찬론을 담은 에세이 집 <만보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4월에 발간했다.



총동창회 축하잔치 푸짐

사진전 · 감사찬양제 · 발레공연...



총동창회(회장 윤순희)가 모교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며 이화 동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다양한 자축 행사를 마련했다. 5월 16일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창립 120주년 감사 찬양제'에는 창립자 스크린 여사의 희생정신을 담은 영상자료 '이화정신의 뿌리'가 상영되었으며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예수'(안무: 신은경 무용과 교수)와 200여명으로 구성된 '이화합창단(지휘: 박신화 성악과 교수)'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 장학생들이 특별한 양을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5월 16~30일, 대강당 로비에서는 '이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동창회 사진전이 펼쳐졌다. 1908년 5명의 동창으로 시작됐던 동창회의 발전사를 비롯, 모교지원 사업, 국내의 지회 활동, 이화인의 밤, 성탄예배, 이화를 빛낸 동창 등 250여장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5월 30일 열린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올해의 이화인 추대, 동창회보 경연대회, 합창제 등을 진행하며 모교 120주년의 역사를 기념했다.



정치계 여풍(女風)의 중심으로 우뚝선 이화

한명숙 동문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정치계를 강타하고 있는 여풍(女風)의 중심에 선 이화인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17대 국회의원으로 폭넓은 정계활동을 펼쳐온 한명숙 동문(불문 · 63년 졸)이 4월 20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한 동문은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은 이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여성운동에 투신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 장관을,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한 동문은 "이념과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5.31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동문들도 있다. 김영순 동문(정외 · 73년 졸)은 송파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서울시 사상 첫 여성 구청장이 되었다. 통일민주당 여성국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신한국당 부대변인, 여성특보 등을 지냈다. 김정재 동문(정외 · 88년 졸)은 서울시 제1선거구(충정로동, 천연동, 대신동, 북아현 1,2,3동, 창천동) 시의원으로서 당선되었다.



헌정은 동문(사회·76년 졸) '21세기 여성 CEO상'



본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출범을 기념해 제정한 '21세기 여성 CEO상'의 첫 수상자가 되었다. 남성 중심의 경영환경 속에서 현대그룹의 위상을 발전시킨 리더십을 높이 평가 받

았으며 시상식은 6월 7일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현 동문은 또한 미국 페어리 디킨슨 대학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했다. 83년 이 대학에서 경영학과 인간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여성 CEO로서 한국의 경영자상을 만들고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효선·오유경·조현주 동문 이화 언론인 상 수상



왼쪽부터 김효선, 오유경, 조현주 동문

김효선(사회 · 84년 졸) 여성신문사 사장과 오유경(정외 · 93년 졸)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조현주(사회 · 85년 졸) 디자인하우스 본부장인 제6회 '올해의 이화언론인' 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4월 27일 (이화 · 삼성교육문화관)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김효선 동문은 한국 최초의 여성언론자인 여성신문의 사장으로서 여성계 소식과 여성 문화,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새로운 시각 형성에 공헌해왔다. 오유경 동문은 여자 아나운서들이 보조적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관행을 깨고 'KBS 시사투나잇' 메인 앵커로 활약하고 있다. 조현주 동문은 디자인하우스에서 발행하는 여성, 아동, 실용 분야 14개 잡지의 총 편집책임자로서 여성 편집자의 역할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화 언론인 상은 매년 언론계 각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을 보인 동문 가운데 신문, 방송, 잡지 등 3개 부문을 선정하고 있다.



동문 동정



신필균 동문(기독교 · 71년 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3년 임기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신 동문은 국민의 정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순덕 동문(영문 · 84년 졸)

5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다. 여성이 쓰는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여성답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83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생활부, 문화부 등을 거쳐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임영규 동문(경영 · 82년 졸)

캐나다 노바스코샤 은행 서울지점장에 6월 1일자로 부임했다. 임 동문은 폭넓은 대인관계와 성실함을 인정받아 HSBC 은행을 제외하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 지점장 자리에 올랐다.



최의숙 동문(의학 · 77년 졸)

6월 1일, 전문직 여성들의 봉사단체인 국제 소롭티미스트(Soroptimist International) 한국협회 총재로 취임했다. 앞으로 2년간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여성, 여성 가장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안소영 동문(약학 · 83년 졸)

김미정 동문(화학 · 00년 졸)

국내 최초로 여성변리사만으로 구성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대표 변리사인 안 동문은 세심한 분석력을 요하는 화학분야 전문으로 특허분쟁 전문가로 꼽힌다. 김미정 동문은 2004년 변리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안 동문은 술자리가 중심이 되는 영업 문화에서 영업과 로비보다는 실력과 서비스의 퀄리티로 승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화국제재단 이사단 방문

"We Support Ewha"



이화 창립 1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화국제재단의 사론 레이더 회장 등 이사 12명이 본교를 방문했다. 5월 27일~6월 1일 국제기숙사에 머물면서 복원된 이화학당 한옥교사,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국제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장학생들도 만났다. 또 30일에는 창립기념식과 총장공관 오찬, 신축 정문 봉헌식에도 참석해 이화의 창립을 축하했다.

이번 방문을 기념해 차승순 이사(Seungsoon Cha Konarska, 기약 69년졸)는 30일 ESCC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장화인 이사(Dr. Hwain C. Lee, 교육심리 69년졸)는 "모교 방문에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며 약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이화국제재단은 본교 후원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 설립되어 지난 40여 년간 든든한 이화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다음은 이번 학기에 이화국제재단이 전달한 장학금 지원 내역.

Chang Hyun Shin Geer Scholarship \$10,000, Chun Hi&Joseph Crivello Scholarship \$2,500, Chicago Alumnae Scholarship \$2,500, Estelle Hillman Scholarship \$2,500, Florence M. Trull Memorial Scholarship \$5,000, Harriet P. Morris Memorial Scholarship \$15,000, Helen Kim Memorial Scholarship \$15,000, Henrietta Gibson Ledden

Memorial Scholarship \$10,000, John D.Yun Scholarship \$2,500, Jong H.Lee CPA Scholarship \$2,500, Kathleen Crane Memorial Scholarship \$2,500, Kathryn B.Sears Memorial Scholarship \$12,500, Laura Mae Ehman Memorial Scholarship \$2,500, Marian Sharrocks Intemann Memorial Scholarship \$7,500, Marion Conrow Memorial Scholarship \$2,500, Mark Gaston Scholarship \$5,000, Myung Soon Woo Chung Scholarship \$10,000, New York Alumnae Scholarship \$10,000, Okgill Kim Memorial Scholarship \$7,500, P.William Lee Scholarship \$7,500, Sadie Maude Moore Memorial Scholarship \$2,500, San Francisco Alumnae Scholarship \$7,500, Shin Hyung Kim Memorial Scholarship \$2,000, Sollie E.McCreless Memorial Scholarship \$5,000, Washington DC Alumnae Scholarship \$12,000

성시경 앙코르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4월 22일(금) ~ 23일(토) 대강당에서 '성시경 앙코르 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성시경의 감미로운 히트곡 외에도 트로트와 랩, 록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여 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싸이를 비롯해, 김창훈, 김연우, 후니훈, 테이 등 정상급 가수들이 게스트로 나와 풍성한 무대를 연출했다. 성황리에 이번 공연을 진행한 (주)제로원인터랙티브(대표 장성웅)은 기부금 4500만원을 본교에 전달했다.



이화삼성캠퍼스센터 기금 소식



최귀란 동문 6억원 약정

이화삼성캠퍼스센터
(ESCC) 건설 초기부터 모
교 발전에 동참할 뜻을 알려왔

던 최귀란 동문(약학 56년 졸)이 4월 15일, 센
터 내 기도실과 갤러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6억원을 약정했다. 최 동문은 “2003년 신인령
총장이 부산동창회에서 ESCC 건립 계획과 학
교 발전 계획을 발표했을 때 깊이 공감했었다”
며 “모교 발전을 바라는 졸업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94년에 이미 21세기 발전기금으로 1억원
을 기부하기도 한 최 동문은 이번 약정으로 총
7억원을 모교에 기부하게 된다. 최 동문이 약
정한 센터 내 두 개의 테마룸은 각각 딸 이미
화 동문(부산고대 교수, 사회 82년졸)과 외손녀
조호윤(미국 컬럼비아대학 재학)의 이름을 붙
여 이미화기도실, 조에스터갤러리로 명명될 예
정이다.

장학금 기탁소식

“선배와 선생님, 지역사회의 정을 담아 보냅니다” - 총동창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부자들의 장학금 기탁

총동창회가 재학생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한 현정옥 동문(간호 67년졸)이 간호대
생을 위한 최신실장학기금으로 \$10,000의 장학금을
보내와 본 기금의 총액이 \$110,000로 늘어났다. 이
혜옥 동문(체육 72년졸)은 모잠비크 출신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GPP)장학생 우투이 나디아
에게 졸업까지 매월 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안세연 동문(사회 95년졸)도 재학생을 위
한 장학금으로 매달 3만원씩을 보내기로 했다. 윤재
승 경영대학 CEO 겸임교수(주)대웅제약 대표이사)
는 특강비 6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다음은
2006학년도 1학기 장학금 기탁자 명단.

유중근(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영어영문 67년졸) 450만원, 의
대동창회안양지회 150만원, 김태임(의학 74년졸) 200만원, 오
혜숙(의학 78년졸) 46만797원, 이현숙(의학 63년졸) 200만원,
조종남(의학 75년졸) 150만원, 최보원(의학 69년졸) 200만원,
최혜영(의학과, 의학 78년졸) 150만원, 한영재(의학 61년졸)
200만원, 이지희(사회복지대학원 05년졸) 500만원, 이명경
(신학대학원 01년졸) 200만원, 미주올랜도지회동창회
\$2,000, 추선희(이영회 71기) 326만4000원, 이경은(의학과,
의학 88년졸) 897만3600원, 이종미(식품영양학전공, 가정
63년졸) 100만원, 김정희(패션디자인연구소) 150만원, 방치웅
(방치과 원장) 150만원, 신원(범양금속주식회사 대표이사)
495만원, 최용철(최치과 원장) 150만원, 한영재(삼양화학공업
(주) 회장) 1200만원, 미연합감리교세계선교부 614만7698원,
아현감리교회 100만원, 이우희 200만원, 이화민주동우회
200만원, 일곡문화재단 150만원,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D\$659, ICSF (International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 \$5,000

이화인닷컴 아름다운 기부 E-pro(2%) 장학금 기부자 명단

홍영주(문헌정보 99년졸) 5천원, 박지영(대외협력과, 중
어중문 98년졸) 2만원, 김민선(생명과학전공 재학) 2천원

2006학년도 1학기 이화인닷컴 장학금 지급

본교 동창포탈사이트 이화인닷컴(www.ewhain.

net)에서 2003년부터 펼치고 있는 E-PRO(2%) 온
라인 모금 캠페인이 세 번째 결실을 맺었다. 십시일
반의 정성으로 모아진 장학금은 예년의 두 배인 200
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1명에게 전달되었
으며, 장학생은 이화인닷컴에 보낸 감사 편지를 통해
선후배 및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화삼성캠퍼스센터(ESCC) 건립기금 약정자 명단

(약정기간 : 2006.2.8~2006.5.5)

국어국문 이미옥(MIOK LEE)(68년졸) \$1,000, 송명숙
(73년졸) 100만원, 국어국문학과 32기(81년졸) 200만원,
정옥희(04년졸) \$1,000 **영어영문** 조중순(Joongsoon
Choi)(49년졸) \$1,000, 김경순(61년졸) 10만원, 김병기
(61년졸) 10만원, 김애령(61년졸) 10만원, 박경숙(61년졸)
10만원, 박수진(61년졸) 10만원, 박인호(61년졸) 10만원,
이기영(61년졸) 10만원, 이보원(61년졸) 10만원, 이영숙
(61년졸) 10만원, 이정희(61년졸) 10만원, 이혜숙(61년졸)
10만원, 조정자(61년졸) 10만원, 김화숙(62년졸) 10만원,
민경희(62년졸) 10만원, 박명순(62년졸) \$1,000, 이정숙
(62년졸) 10만원, 홍애영(62년졸) 10만원, 김영교(63년
졸) \$500, 변순자(68년졸) 200만원, 영어영문학과 19기
(68년졸) 800만원, 이영숙(68년졸) 100만원, 전정영(68
년졸) 200만원, 홍영신(73년졸) 50만원, 위진영(76년졸)
500만원, 오경실(89년졸) 100만원, 손지선(02년졸) 120
만원 **불어불문** 김재희(Jae Hee Kim 79년졸) \$3,000,
김지현(88년졸) 33만원, 최선희(03년졸) 60만원
독어독문 민경숙(70년졸) 100만원 **사학** 사학과 6기
(64년졸) 250만원, 사학과 16기(74년졸) 100만원, 사학

과 25기(83년졸) 250만원, 사학과 26기(84년졸) 250만
원, 사학과 30기(88년졸) 250만원, 이희명(HeeMyung
Lee 59년졸) \$500, 강현숙(82년졸) 30만원, 김미란(82
년졸) 30만원, 김시연(82년졸) 40만원, 문정실(82년졸)
30만원, 박순영(82년졸) 30만원, 신영희(82년졸) 30만
원, 심길섭(82년졸) 30만원, 이영희(97년졸) 30만원
정치외교 김은주(76년졸) 20만원, 민여숙(76년졸) 20만
원, 박영주(76년졸) 20만원, 이봉림(76년졸) 20만원, 이
봉자(76년졸) 20만원, 이영희(76년졸) 20만원, 이용옥
(76년졸) 20만원, 최종혜(76년졸) 20만원 **행정** 최희숙
(88년졸) 100만원 **문헌정보** 문헌정보학과 9기(71년졸)
300만원, 문헌정보학과 17기(79년졸) 100만원, 송영희
(97년졸) 100만원 **언론홍보영상** 장양수(85년졸) 20
만원 **사회** 사회학과 4기(65년졸) 500만원, 사회학과
13기(74년졸) 500만원, 진정연(61년졸) 50만원, 전정식
(62년졸) 50만원, 김영복(63년졸) 100만원, 김현주(81년
졸) 25만원, 이선아(81년졸) 100만원, 익명 1000만원
심리 임병대(60년졸) \$500, 김향연(75년졸) 100만원
경제 김현호(04년졸) 60만원, 박희림(04년졸) 60만원

수학 녹수회 100만원, 수강회 50만원, 수학과 17기(73
년졸) 200만원, 이숙자(73년졸) 50만원, 김효숙(76년졸)
100만원, 박복자(76년졸) 100만원, 채중숙(76년졸) 100
만원, 최영주(82년졸) 100만원, 윤양현(86년졸) 100만원
물리 물리학과 7기(67년졸) 100만원, 조옥주(61년졸)
1000만원, 김용희(63년졸) 100만원, 김경희(73년졸)
100만원, 최현옥(76년졸) 500만원 **화학** 이종옥(73년
졸) 200만원, 배경화(74년졸) 200만원 **생명과학** 박해
순(72년졸) 100만원, 김미경(75년졸) 12만원, 김연옥(75
년졸) 12만원, 김용숙(75년졸) 12만원, 김정숙(75년졸) 12
만원, 김혜령(75년졸) 12만원, 박동옥(75년졸) 12만원, 박
문선(75년졸) 12만원, 박성실(75년졸) 12만원, 박혜숙(75
년졸) 12만원, 신명희(75년졸) 12만원, 오현애(75년졸) 12
만원, 유보영(75년졸) 12만원, 윤명숙(75년졸) 12만원, 윤
순옥(75년졸) 10만원, 이영옥(75년졸) 12만원, 이임렬(75
년졸) 12만원, 이화남(75년졸) 12만원, 정나용(75년졸) 12
만원, 조미현(75년졸) 12만원, 하인자(75년졸) 12만원, 허
복희(75년졸) 12만원 **작곡** 김순재(69년졸) 100만원,
김수경(SookKyung Kim)(75년졸) \$2,000 **종교음악** 강

VIP 후원자를 위한 이화 프레스티지 이벤트

대외협력처(처장 황혜진 교수)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이화의 VIP 후원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차원의 이화 프레스티지 이벤트(Ewha Prestige Event)를 실시한다. 이 이벤트를 통해 VIP 후원자들은 2006년 6월부터 1년간 대외협력처와 연계한 동문 기업 및 우수 기업의 상품을 10~50%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외협력처는 1000만원 이상 기금 약정자에게 이화 프레스티지 프레젠티 카드(Ewha Prestige Present Card)와 이벤트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특히 코모도 호텔 회장인 이영숙 동문(약학 57년졸, ALPS 1기, 사진 오른쪽)은 2007년 5월까지 이화 교직원과 동문이 코모도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경우 부산코모도 호텔은 30%, 경주코모도호텔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업체 명단.



■외식산업: 그릴H, 라쿠치나, 스시꼬, 예당 ■건강/뷰티: 라 클리닉 드 파리, 명가미 장원, 살롱드치, 정현정 파라팜, (주)폴니한스코리아 ■인테리어: 문화랑, (주)파모스 ■패션: 미센주, 앙스모드, 이광화비티크 ■한복: 박솔녀한복, 아라가야한복, 전옥화한복, 전윤자한복 ■호텔: 메이필드호텔, 워커히호텔, 코모도호텔, W호텔 ■웨딩: 베라랑, 황재복 웨딩 ■건강식품: 정관장 전시매장

이화인닷컴 장학금을 위한 E-PRO(2%) 모금 참여 방법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ewha21.ewhain.net>)의 E-PRO (2%) '모금캠페인'에서 인터넷 결제를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를 통하여 장학금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영(04년졸) 100만원 **장식미술** 민병진(95년졸) 100만원 **무용** 이명희(68년졸) 1000만원 **교육** 강영희(04년졸) 100만원 **유아교육** 이순일(35년졸) 20만원, 류지후(63년졸) 300만원, 김신재(71년졸) 200만원, 이순례(71년졸) 500만원, 권옥자(74년졸) 300만원, 정은주(79년졸) 100만원, 현은자(82년졸) 300만원, 박정선(84년졸) 300만원, 조부경(84년졸) 500만원, 박혜경(90년졸) 500만원, 신상인(90년졸) 300만원, 김난실(04년졸) 100만원 **영어교육** 강월석(76년졸) 50만원, 김영선(76년졸) 100만원, 김화숙(76년졸) 50만원, 박복남(76년졸) 10만원 **과학교육** 유명심(74년졸) 400만원 **법학** 조남진(68년졸) 20만원 **경영** 노석미(80년졸) 500만원, 서지희(86년졸) 500만원, 김효희(94년졸) 120만원, 노원(94년졸) 120만원, 신효영(94년졸) 120만원, 정오영(95년졸) 120만원, 김희선(00년졸) 60만원, 최은실(02년졸) 120만원, 김수진(05년졸) 60만원, 남인영(05년졸) 60만원, 임지현(05년졸) 60만원, 김연정(06년졸) 60만원, 신수민(06년졸) 60만원, 최선영(06년졸) 60만원 **의학** 이향원(Dr.Hyang Won Lee)(51년졸) \$1,000 **간호** 이화선(69년졸) \$2,000 **약학** 김영자(Young Za Kim)(57년졸) \$5,000 **의류직물** 이영일(Young Park)(72년졸) \$3,000, 전주희(06년졸) 60만원 **해외동창회** 북가주동창회

\$9,000 **이영희** 박명주(45기) 400만원 **교직원** 김은미(국제학과, 사회 81년졸) 300만원, 윤난지(미술학과, 사회 76년졸) 300만원, 정덕애(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 74년졸) 500만원, 권은미(불어불문학전공, 불어불문 79년졸) 300만원, 김석향(북한학협동과정, 사회 85년졸) 300만원, 남궁근(정치외교학전공) 100만원, 안홍식(경제학전공) 500만원, 정연경(문학정보학전공, 문학정보 85년졸) 500만원, 차미경(문학정보학전공, 문학정보 87년졸) 500만원, 조성남(사회학전공, 사회 77년졸) 300만원, 함인혜(사회학전공, 사회 81년졸) 500만원, 이주희(사회학전공, 사회 87년졸) 300만원, 최선헌(사회학전공, 사회 93년졸) 300만원, 양옥경(사회복지학과, 영어영문 82년졸) 100만원, 정순돌(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90년졸) 300만원, 이영애(심리학전공, 교육심리 71년졸) 1000만원, 이혜원(심리학전공, 심리 91년졸) 300만원, 이승연(유아교육과, 유아교육 93년졸) 300만원, 차미희(사회생활학과, 사회생활 85년졸) 300만원, 서혁(국어교육과) 300만원, 임정임(구매과, 기독교 90년졸) 30만원, 하인숙(중앙도서관, 문헌정보 73년졸) 100만원, 조수희(중앙도서관, 문헌정보 97년졸) 100만원 **기타** 이희원(Maxwell Rhee 국제재단이사) \$2,500, 변희정 1만1천원

교내 각 기관 발전기금 기탁 현황 (약정기간 : 2006.2.8 ~ 2006.4.25)

21세기발전기금

이유리(관현악 96년졸) 500만원, 이소애(법학 01년졸) 7천270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건강과정지원센터기금

익명 1억원

공과대학발전기금

(주)엘지텔레콤 3000만원

신공학과건축기금

김광옥(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 75년졸) 1000만원, 김영석(식품공학전공) 600만원, 박진병(식품공학전공) 400만원, 오상석(식품공학전공) 600만원, 정명수(식품공학전공) 400만원

조형예술대학특별프로젝트기금

고동혁 2000만원, 김대식 1000만원, 김병만 1000만원, 김현희 2000만원, 백정선 1000만원, 임병철 2000만원, 장운상 1000만원, 채정모 500만원, 함춘국 1000만원, 황승하 1000만원

사범대학교육관건축기금

김진숙(교육 67년졸) 100만원, 김재인(교육 70년졸) 100만원, 임선희(교육 72년졸) 200만원, 호재숙(교육 공학과 명예교수, 교육 53년졸) 200만원, 이마행(영 어교육 85년졸) 2만5000원, 최윤애(사회생활학과 명예교수, 영어영문 49년졸) 300만원, 유명심(과학 교육 74년졸) 300만원, 엄용재(과학교육 82년졸) 100만원, 김인수(과학교육 75년졸) 100만원, 경명신(과학교육 80년졸) 100만원, 김영희(과학교육 76년졸) 200만원, 임영민(과학교육 77년졸) 100만원, 손정순(과학교육 77년졸) 100만원

의과대학발전기금

방유현(학부형) 500만원

의과대학사랑실천기금

CJ(주)(씨제이주식회사) 200만원, 신상진(의학과) 200만원, 이승신(의학과) 200만원

간호학과관건축기금

김경미(간호 89년졸) \$500, 이지영(01년졸) 3만 3000원

전문간호사훈련기금

이세용(신일기업(주) 회장) 5000만원

이화간호실버프로젝트기금

이수진(간호 05년졸) 100만원

기호학연구소기금

김치수(불어불문학전공 명예교수) 3058만8916원

EBS발전기금

송유재(언론홍보영상학전공, 신문방송 66졸) 1000만원

동대문병원발전기금

이혜진(의학과, 의학 96년졸) 500만원

유아교육발전기금

이재우 500만원, 황순엽 300만원

초등교육발전기금

하태진 1000만원

이화탄생의 축제 : 메이데이 변천사 “이화학당의 잔치는 장안의 화제”

이배용(이화역사관장·사학과 교수)

메이데이는 이화여자대학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기간을 말한다. 1886년 스크랜튼 부인이 학생 한명을 마주하고 시작한 수업을 근거로 5월 31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하였고, 공식적인 기념식과 행사는 프라이 당장(堂長) 재직시인 1908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는 고등여학교령이 제정되었고 민간에서도 여성교육에 대한 각성과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때여서, 사회의 대단한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첫 메이데이 행사에는 이화학당 초창기에 외부독판(外部督辦)이었던 김윤식이 참석하여, 고종황제께서梨花라는 당명(堂名)과 현판을 하사하는데 중개역할을 하였던 당시를 회고하며 이화의 발전상에 감격해 하기도 하였다. 메이데이의 백미였던 메이퀸 행사는 1908년 스크랜튼 부인을 메이퀸으로 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초창기에는 선생님 중에서 학교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을 메이퀸으로 선출하였다.

1927년 메이데이부터는 학생을 퀸으로 뽑게 되었다. 메이데이 행사는 어느덧 온 장안의 인기 있는 구경거리가 되어 몰려오는 관객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에 학교에서는 밀리는 관객을 정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받았는데도 “이화학당의 뜰은 사람 발자취에 남을 곳이 없었다”고 보도될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다. 1933년에서 1936년까지는 일제의 간섭으로 메이퀸 선발이 중단되었고, 그 대신 가을에 열리는 운동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세가 곧고 걸음걸이가 아름답게 균형 잡힌 학생을 자세여왕으로 선발하였다. 그나마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기념행사와 함께 메이퀸 선발도 중단되었고, 1947년에 메이퀸 행사를 재개하였으나 1948~55년은 정세의 불안과 한국전쟁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1956년부터 재개한 메이퀸 행사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메이퀸의 자격규정과 선출방법이 정해졌다. 메이퀸 후보를 각과에서 4학년 학생들이 투표로 뽑고, 최종적으로 교수와 동창생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여왕을 선발하였다. 1962년부터는 ‘이화잔치’라고 하여 남학생을 초청하여 포크댄스와 쌍쌍파티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1966년에는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동창여왕을 선발했는데 이화의 첫 한국인 총장인 김활란 박사가 추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화인들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메이데이 행사에서 메이퀸 존속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1978년 메이퀸제도가 폐지되었다. 1986년에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졌다.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펜셀러상과 이화봉사상을 마련하여, 졸업생 중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찾아 이화인에게 알림으로써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1980년대 중반의 메이데이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사회 열망을 담아 민족·민주대동제의 이름하에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95년 10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는 ‘차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제정하여 헌신적 봉사정신과 탁월한 능력으로 이화 정신의 귀감이 되는 동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창립 12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 여성교육발상지인 ‘이화학당’ 한옥교사가 복원되어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되살려졌다. 이와 같이 메이데이 행사는 이화 창립 기념행사로서 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 이화에 안겨진 과제를 숙지하고 여성지도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최초의 공식적인 창립기념행사였던 1908년 창립 32주년 기념행사. 각종 축하행사 중 메이퀸 대관식은 행사의 중심이었고, 초대 메이퀸은 창립자 스크랜튼 부인이었다. <위사진>

1956년 창립70주년 행사때의 상황을 이룬 파라솔 물결의 인파. <왼쪽 사진>

전수진의 메이퀸 대관식. <오른쪽 사진>